

로씨야어에두름법의 언어학적특성과 그 활용

채 유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체는 교제분야와 목적에 맞게 표현적효과를 높일수 있게 하는 문체론적수단과 수법의 체계입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130페이지)

사람들은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고착된 언어수단들을 리용하여 의사소통을 진행한다. 이때 사용되는 언어수단과 수법들을 통털어 문체론적수단과 수법이라고 한다.

지난 시기에는 로씨야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에두름수법이 주로 언어레절의 테두리에 국한되어 쓰이였다면 오늘날 그 영역은 보다 넓어지면서 사회생활의 다양한 주제의 교제분야에서 적중한 표현적효과를 나타내며 쓰이고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로씨야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고있는 에두름법의 언어학적특성을 해당한 주제의 교제분야에서 에두름말의 기능문체론적특성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고 그 활용에서 나서는 문제를 론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문체론적표현수법으로서의 에두름법의 본질적특성을 구체화하여 분석해보자.

일반적으로 에두름법(эвфемизм)은 본래 가지고있는 이름이 정중하지 못하고 상스럽기때문에 레절있고 문화성있게 말하기 위하여 에둘러서 표현하는 수법이다.

에두름말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에서 말을 주고받는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날카롭게 들리는 그러한 표현들을 바꾸어주는 단어 및 표현들》 또는 《말을 주고받는 상대방에게 있어서 레절없고 거칠고 투박하게 인식되는 단어 및 표현들대신에 사용되는 정서적이며 중성적인 단어 및 표현들》로 널리 알려져있다.

전통적으로 에두름말은 말하는 사람에게 상스럽고 레절이 없는것으로 생각되는것을 대신하는 단어 및 표현으로서 해석되고있다.

한편 널리 일반화된 에두름말의 개념과 함께 《금지된 단어를 대신하는 단어 및 표현들》로서 보다 협소한 의미도 존재한다.

이러한 정의에 보충하여 말한다면 일반어휘와는 달리 에두름말은 이러저러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평가에 매우 예민하다는것이다.

이와 밀접히 련결되어있는것은 언어체계와 언어행위에서 에두름말현상이 가지고있는 시대적변화성이다. 다시말하여 어느 한 세대에 있어서 적중한 에두름말로 명명되던것이 다음세대에 있어서는 그것을 교체할것을 요구하는 말로 평가될수 있다는것이다.

에두름법은 본질에 있어서 어떤 대상이나 사실 혹은 현상을 직선적으로 찍어서 표현하는것을 피하고 보다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문체론적수법이다.

에두름법은 언어교제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외곡되지 않을뿐아니라 보다 정중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최근 시기 여러 교제분야 특히 외교, 법률, 군사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로씨야대중보도수단의 글에서는 에두름법을 조소와 야유 등 해당한 평가적색채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우선 에두름법은 대상, 특성, 행동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문체론적표현수법으로서 언어행위의 다른 표현수법과 관계된다.

에두름법은 2중부정법(небесспорный 논박할수 없는, не без умысла 의도적인, неглупый 똑똑한) 또는 진술의 긍정부문으로부터 부정이 교체되는 부정긍정법(예: Не думаю, что вы правы.(나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지 않는다.); Думаю, что вы не правы.(나는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과 언어행위의 대상, 특징, 행동이나 과정 등의 정도를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는 표현수법인 축소강조법과도 관계된다.

예: — Он вполне прилично плавает.(о хорошем пловце)

(그는 아주 수영을 잘한다.)(실지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 대하여)

— Ее трудно назвать красавицей.(об уродливой женщине) (그 여자를 아름답다고 하기는 힘들다.)(실지 생김새가 곱지 못한 여자에 대하여)

또한 에두름법은 말하는 사람이 상스러워보이는 이러저러한 단어 및 표현들을 부드럽게 해주거나 대상, 현상의 본질을 가리워주고 모호하게 해주는 어휘들을 선택하여 쓰는 데서 다른 수법들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것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опухоль(암)이라는 단어대신에 쓰인 новообразование(암, 종양)와 같은 형의 의미적으로 모호한 의학전문용어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вшивость(이기생병)대신에 쓰인 педикулёз류형의 외래어전문용어의 실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에두름법이 널리 사용되는 일부 주제의 로씨야어교제분야를 분석하여보자.

우선 병, 사망과 관련되는 교제분야에서 에두름법이 리용된다.

예: — Она совсем плохая.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자일 때 쓰임)

(그 여자의 병은 몹시 위급하다.)

— Ушел от нас. Его не стало. (умер대신에 쓰임)

(그는 사망했다.)

кончина(서거)는 смерть(죽음)대신에 쓰이며 летальный исход(사망)은 의학적인 에두름말로써 смерть(죽음)의 직접적인 뜻을 대신하여 쓰인다.

일련의 《입에 올리기 힘든 병들》의 명명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유적이며 의미가 모호한 에두름법들을 리용하였다. 실례로 성병을 дурная болезнь(화류병)으로, 매독을 французский насморк(림질)로 예들려 표현하는것을 들수 있다.

사망이나 장의와 관련한 주제의 영역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에두름말이 쓰인다.

실례로 скончаться(서거하다)와 낱투이며 속어인 кончиться(사망하다), усопший(고인), предать земле(사망하다) 등의 표현을 들수 있다.

그리고 장의기관들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공식적인 언어에서 애매하게 인식되도록 에두름법으로 표현하는것을 볼수 있다.

예: ритуальные услуги (장례식봉사기관) (원래 의미는 의례봉사)

또한 사회특수기관의 명명분야와 관련되는 주제의 영역에서 해당 내용의 공개를 의식적으로 피하기 위하여 모호한 의미를 가진 어휘들을 사용하고있다.

수용소 또는 감옥, 군수공장, 국가안전위원회, 련방안전국, 련방수사국 등의 기관에 한하여 권위있는 기관(компетентный орган)이라는 에두름명명이 쓰이고있다.

실례로 수용소나 감옥을 행정 및 사무관계분야의 통용어로서 《учреждение》(기관)이라고 부른다.

례: В это время в учреждение поступило много новых людей.

(최근 《수용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왔다.)

단어결합 отдельно стоящее помещение(외파로 서있는 건물)은 수용소에서 독감방을 에둘러 나타낸것이다.

надзиратель(간수)은 최근에 와서 보다 애매한 뜻을 가지면서 혐오스러운 의미가 없는 контролёр(검열원)의 단어로 교체되었다.

агент(간첩) 또는 멸시의 뜻을 나타내는 стукач(밀고자)대신에 информатор(통보자) 또는 доброжелатель(호인)들이 교체되어 쓰이고있다.

례: Агент неудобно говорить, ну, доброжелатель можно сказать, доброжелателью.

(Агент는 말하기 불편하지만 доброжелатель은 말하기 일없다.)

спец-가 붙은 많은 명명적단어들은 《위장된》 단어로서 아주 전형적이다. 단어 спец-контингент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류배살이하는 사람을, спецотдел은 일정한 군부대의 특수과를 나타내며 민간에서는 первый отдел이 수사 및 검열기관을 에둘러 나타낸 단어로 쓰인다.

спекакция와 акция는 통용어에서 사형선언을 집행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단어결합 высшая мера(극형)은 사형선언을 에둘러서 표현한것으로서 공식적인 법률전문용어로 되었다.

단어 нейтрализовать(무력하게 하다)와 обезвредить(해를 입지 않도록 하다)들은 다음의 문맥들에서 모호한 뜻을 가지고 에두름법의 수단으로 리용되었다.

례: — Надо было нейтрализовать охрану. (= перебить, уничтожить) (호위대를 모두 죽였어야 했는데.)

— После того, как часовой был обезврежен. (= убит или приведен в состояние, когда он не может действовать) (보초병이 죽은 다음에.)

— В «Вечерней Москве» появилась провокационная статья о якобы готовящемся физическом устранении Президента.

(《웨체르나야 모스크바》신문에는 마치도 대통령암살을 준비하고있는것처럼 도발적인 기사가 실렸다.)

다음으로 에두름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단어들의 특징을 분석하여보기로 하자.

우선 《모호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규정어(некоторый 일부, известный 알려진, определенный 일정한,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해당하는, надлежащий 응당한)로 쓰이면서 해당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비난 또는 명백히 지적해야 할 대상명명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가진 조소와 야유의 색채를 표현한다는것이다.

례: — Не советуясь с нами, он (президент) поддержива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своими действиями привело страну к известным результатам.

(우리과 토의도 없이 그는(대통령) 나라를 이 지경으로 몰아간 정부를 지지하고있다.(известный результат는 부정적 의미)

- Как выразился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департамента Владимир Зайцев: «определенный контакт» между нашим подразделением и охраной банка был, но все живы и здоровы. Просто освободили проход, но освободил и так, что надолго им запомнится.

(부국장 올라지미르 자이체브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부대와 은행자위 경비대사이에 일정한 접촉(전투)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고 다 건강하다. 그저 통로를 열었는데 어떻게나 힘들게 열었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잊지 않을 정도였다.》)

- Чемпион мира не лучшим образом распорядился своими фигурами в цейтноте(то есть плохо).

(선수권보유자는 바빠 서두르면서 몸동작을 잘하지 못하였다.) (락후하다는 의미)

또한 구체적인 대상과 개념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의미를 담고있는 명명들인 акция, изделие, объект, продукт, учреждение, материал 등을 리용한다는것이다.

레: На вас поступил материал. (당신에 대한 부정자료가 들어왔다.)

《상급기관들에서 보내는 부정적인 내용의 통보》를 일반적인 의미인 сигнал(신호)로 에둘러 표현하기도 한다.

레: В свое время мы не прислушались к сигналам с мест.

(한때 우리는 현지에서 보내오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정황과 교제목적에 따라 여러 대상에 대한 에두름수단으로 쓰일수 있는 одно место, это дело 등의 로어대명사구들이 있다.

레: - Мне надо в одно место сходить.(=в уборную).

(나는 어디 갔다올데가 있어.) (위생실의미)

- Он же(муж) у меня парализованный.(바로 그 사람(남편)은 장애인야.)

- От этого дела? (이 문제때문에 그러니?)

- А от чего ж еще? Конечно, от этого.(=от пристрастия к спиртному).

(왜라니? 물론 이 문제때문이야.) (알콜중독)

또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던 고유어휘보다 사건의 본질을 모호하게 하기 위한 보다 유익한 표현으로서 외래어단어들과 전문용어들이 리용된다는것이다.

레: канцер 종양, 암 (рак대신에 쓰임)

педикулез 이기생병 (вшивость대신에 쓰임)

또한 사법분야와 군사 및 국가비밀과 관련된 분야를 에둘러 표현하는 로어락어들이 쓰인다는것이다.

레: ВМ(высшая мера)(극형), ДСП(для служеб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사무용, СС(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절대비밀(문건우에 쓰게 되는 문구), ЗЭК(заключенный каналоармеец)(수인)(이 락어는 백해-발트해운하건설시기에 생겨남.), ПКТ(помещение камерного типа)(감방) 등이 있다.

또한 신체의 불충분한 활동을 표현하는 일부 로어단어들이 자체의 고유한 의미에서

가 아니라 신체의 해당한 부족점을 가리워주는 에두름표현으로 사용된다는것이다.

례: — Он недослышит. (о глухом) (그는 잘 듣지 못한다.)

— Он прихрамывает. (о хромом) (그는 다리를 전다.)

또한 앞붙이 под-가 붙은 подъехать, подойти, подвезти형의 일부 동사형태들은 듣는 사람(대체로 속어를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친절한 감을 느끼도록 하여준다는것이다. 이러한 동사들은 직접적표현들인 приехать, прийти, привезти, довести대신에 쓰이는 에두름표현이다.

례: — Можно к вам подъехать, чтобы обсудить это прямо сегодня?

(오늘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당신에게 가도 좋겠습니까?)

— Я часам к шесть подойду. Вы у себя будете?

(내가 6시경에 들리겠습니다. 방에 있겠습니까?)

— До метро подвезите, пожалуйста.

(지하철도까지 태워주십시오.)

동사 подсказать(귀띔하다)가 다음과 같은 류형의 문맥에서 에두름표현으로 쓰인다.

례: Не подскажите, как пройти к Военторгу?

(군인상점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대주십시오.)

에두름말의 표현수법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쓰이는 분야는 외교분야이다.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은 교제를 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명명들만 사용하여서는 소기의 목적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호상 이해하면서 서로의 의견상이를 전면에서 내세우지 않고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데서 례의를 나타내는 적중한 에두름말을 반드시 써야 한다.

례: пойти на крайние меры(최후수단을 쓰다),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е последствия (예측할수 없는 후과), конфронтация(충돌)(전쟁, 국부전쟁이라도 일어난 정세에 적응하여), определенные круги(일부 사람들),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инстанции (해당 단위들), миротворческие акции(유엔평화유지군활동), принцип взаимности (호상성의 원칙)

Блокада, а все литовцы употребляют именно это слово, отвергая предложенн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ССР эвфемизмы, — не ожесточила и не озлобила жителей республики. Скорее, они говорят о «санкциях» с недоумением и обидой...

(모든 리프바사람들이 봉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있다. 한편 쏘련정부가 사용하던 에두름말을 배격하고있다. 봉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공화국의 주민들을 격분케 하지 않았고 또 악에 받치게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보다 정확하게는 《체제》라는 단어에 대하여 오해감과 모욕감에 차서 말하고있다.)

이와 같이 로어에두름표현은 다양하며 오늘날 로씨야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해당 교제의 목적에 맞게 널리 쓰인다는것을 알수 있다.

일부 로어학습자들속에서는 교제분야와 목적에 맞게 에두름말을 적중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표현적효과를 심히 떨어뜨리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이것은 로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통역이나 번역실천과정에 해당 정황과 장면, 문맥에

따라 필요한 대역을 적중하게, 표현성있게 하지 못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특히 필자나 상대방이 《모호하거나 은폐된 의미로 표현한》 의도를 가려보지 못하는것을 들수 있다.

실례로 병원에서 의사들이 환자의 병상태를 놓고 가족측에 설명하는 대목에서 《Он совсем плохой.》(환자는 전혀 가망이 없다.), 《У него отрицательный новообразованный.》(그는 악성종양을 앓고있어.), 《ритуальная услуга》(장의봉사기관) 등의 에두름표현들이 섞인 문장들을 볼수 있는데 이것을 직접적인 명명적의미, 전의된 의미로 리해하여서는 정확한 대역을 할수 없다.

특히 환자는 《매우 위험한 상태》, 《새로 악성으로 조성된》, 《례식봉사》와 같은 의미로 리해하면 의사가 환자의 가족에게 《힘들게》 설명하는 의도가 충분히 전달될수 없으며 나아가서 통역과 번역실천에서 심중한 오해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로어전문가들이 최근 로씨야사람들의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에두름표현수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그 활용능력을 높여나가는것은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로씨야어에두름법이 지난 시기와는 달리 단순한 언어레절의 테두리를 벗어나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교제분야에서 널리 쓰이고있는 문체론적수법이라는데 대하여 입말과 글말의 레문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실천적으로 습득하는것이 필요하다.

례: — Была отмечена нескромность главы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овал свое служебное положение в корыстных целях. (то есть брал взятки, торгова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муществом).

(리기적인 목적에 자기 직권을 람용한 행정장관의 부정부패자료가 밝혀졌다.) (즉 퇴물을 받아먹고 국가재산을 팔아먹었다.)

— Руководители не приняли необходимых мер для борьбы с коррупцией и сами проявили личную нескромность.

(책임자들은 부정적인 현상과의 투쟁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자신들부터가 리기적인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우의 레문에서 단어 《нескромность(겸손하지 못한 현상)》는 주로 일반사람들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직위를 가지고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이는 에두름말로서 《부정부패, 퇴물행위》들을 가리킨다.

외국어를 실천적으로 소유하자면 해당 나라 사람들의 교제분야에서 표현적효과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문체론적쓰임현상을 최근 현실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는 로씨야어문체론적표현수법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로씨야어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며 그에 맞는 실리있고 우월한 교수방법들을 적극 탐구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교육중시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